

‘남도민속학’의 형성과 기반 조성*

- ‘지춘상’ 교수의 역할을 중심으로 -

박 종 오**

- I. 남도 남도민속학
- II. 남도민속학의 씨 뿌림
 - 1. 민속자료 발굴
 - 2. 학술적 개념 정립
- III. 남도민속학의 뿌리내림
 - 1. 연구 동료 육성
 - 2. 연구 학회 결성
- IV. 남도민속학의 가지 뻗음

국문초록

전라도 지역을 지칭하는 ‘호남’이라는 단어가 지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명칭이라면, ‘남도’는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명칭이다. 동은 지춘상 교수는 남도 지역 민속 연구의 기반 형성과 발전에 구심적 역할을 한 분이다. 전남 함평에서 태어난 지춘상 교수는 전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면서 남도민속자료 발굴 및 학술상 수상 등을 통해 남도민속연구에

* 이 글은 2022년 <‘영호남의 대화’ 공동학술대회>(2022년 12월 21일, 경북대학교)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kfolk@naver.com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지춘상 교수는 민속자료 발굴을 통해 일반 사람들이 우리 민속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고싸움’, ‘강강술래’ 등 남도의 다양한 민속자료를 발굴하고 홍보하였다. 아울러 ‘남도’라는 명칭이 문화적 특성이 있는 단어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남도지역의 문화적 특성으로 예술성, 풍류성과 멋, 서민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도민속연구를 함께할 동료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지춘상 교수가 배출한 제자들은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대학에 재직하면서 남도민속연구를 수행하는 든든한 지원자이자, 동료 연구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울러 남도민속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연구 학회도 조직하였다. 이 조직을 바탕으로 연구 범위 확대, 연구 분야 다양화 등을 통해 학문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지춘상 교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만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들이 지도한 제자들 또한 연구 역량을 갖추어 남도민속연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늘날 민속 현장에는 지춘상 교수의 뜻을 품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 주제어

지춘상, 호남, 남도, 민속, 현장 조사, 동료 연구자, 남도민속학회

“‘남도 민속학의 대부’ 고(故) 지춘상(1931~2009·사진) 교수의 소장 민속자료 2만여 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기증된다. 지 교수는 1960년대부터 40여 년 동안 전남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며 민속학 연구에 헌신했다. 생전 수집한 사진 1만9000여 점, 동영상, 조사 노트 등 기증 자료는 2014년 광주광역시에 들어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시될 예정이다. 지 교수의 부인인 김용서 전남대 명예교수의 결심에 따라 기증이 이뤄졌다. 지 교수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강강술래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인 고싸움놀이(제33호)를 발굴, 재현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또 들노래·씻김굿·농악 등 20여 개의 민속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되도록 힘써 남도 민속학의 대부로 통한다. 기증식은 29일 열린다.”

- <고 지춘상씨 소장 민속자료 2만점 기증>, 《중앙일보》 2012.11.28. 31면 기사 -

I. 남도, 남도민속학

“그 고향을 가다가 그때 논매는 소리 하고, 그다음에 밭에서 한 아주머니가 흥글노래·신세타령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저는 가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 가지고 ‘무슨 노래를 저렇게 하고 있냐’. 그때가 대학 3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제가 돌아와서 그 노래 들은 것을 머리에 새기면서 ‘정말로 한국의 어떻게 보면 정신과 한은 저런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¹⁾ 중에서 -

민속학의 범위 확대를 염두에 둔 짧은 소견으로 필자는 민속학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던 과거의 삶을 고찰하여 현대와 비교해 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 보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곤

1) 2004년 2월 20일에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민속학회 제64차 학술대회에서 지춘상 교수(당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연한 자료를 녹취한 것이 부록 ‘원로에게 듣는다(Ⅲ)’라는 제목으로 5~14쪽에 게재되어 있다. 부록 자료에 새로이 쪽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일반 논문 쪽 번호와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녹취 내용을 인용하는 쪽 번호는 따로 적지 않는다(지춘상, 「나와 남도 민속학」,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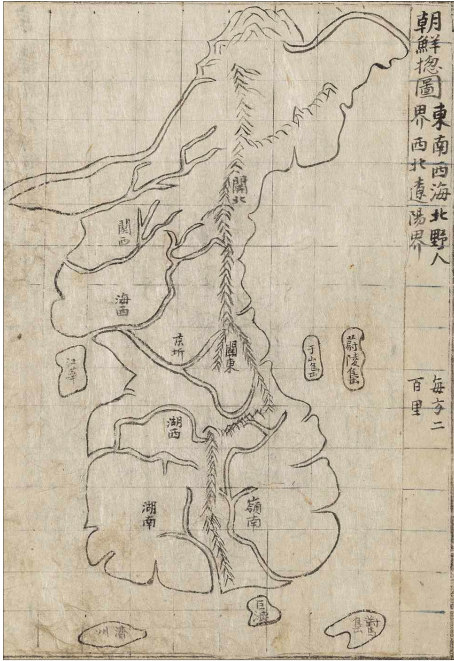
한다. 실제 민속학이 민간전승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면 그 대상 범위는 한없이 세분될 수 있으며,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학의 學的 성격이 총체적인 학문이기에 우리나라에서 단편적이거나 민속에 관하여 관심이 짝튼 것은 조선 중엽 이후 실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 손진태(1900~?)와 송석하(1904~1948)가 민속학 연구에 있어 개인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1924년 조선총독부가 『朝鮮民俗資料』를 출간한 이래 관 주도의 조사사업이 주된 민속학 연구 방식이 되었다. 광복 이후 《민속학보》가 두 차례 발간되었고, 국학대학, 숙명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 등에서 민속학 관련 강의가 개설되었다. 1969년에 한국민속학회가 창립되었고, 1970년도에는 학회지 『한국민속학』이 발간되었다. 1971년에는 원광대학교에 민속학 전문연구기관인 민속학연구소가 개설되었고, 1978년 안동대학에 우리나라 유일의 민속학과가 개설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강원민속학회’와 ‘남도민속학회’ 등 지역 민속 연구 학회가 창립되어 민속학 연구의 범위 확대와 심화를 꾀하게 된다.

이 중 남도민속학회를 창립하고 남도민속연구의 구심적 역할을 한 연구자가 바로 東隱 池春相(1932.10.09.~2009.05.29.)²⁾ 교수이다. ‘전라도’라는 명칭이 행정적 의미를, 그리고 ‘호남’이라는 명칭이 지리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 ‘남도’라는 명칭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다.

‘전라도’라는 명칭은 고려 시대에 처음 사용된 말이다. 고려 초기에 지금의 전라도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全州牧, 羅州牧, 昇州牧(현, 순천)이 설치되었다. 995년에 成宗은 전라북도 일대를 江南道, 전라남도 일대를 海陽道로 정하였으며, 1018년 顯宗은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全州와

2) 지춘상 교수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서중(1951년), 광주고등학교(1952년),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1956년)을 졸업하였고, 일본 동경교육대학교(現, 쓰쿠바대학, 1977년)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60년부터 1998년까지 전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고, 전라남도 문화상(인문과학부문, 1970년), 서울신문사 향토문화상(1981년), 문화훈장(花冠, 1982년), 금오학술상(1994년) 등을 수상하였다. 2011년에는 광주문화원연합회에서 제정한 제1회 향토문화대상을 받았다.



〈그림 1〉『才物譜』〈朝鮮總圖〉에 호남이라는 명칭이 보인다.(서울대학교 규장각)

羅州의 첫 글자를 딴 全羅州道を 설치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전라도라고 하였는데, 때에 따라 ‘全光道’, ‘全南道’, ‘光南道’ 등으로도 불리었다. 1896년에 13道制가 실시되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나뉘었다. 1946년 제주도가 道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고, 1986년에 광주시가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전라남도에서 분리, 현재에 이르고 있다.³⁾

‘湖南’은 ‘호수의 남쪽’이라는 뜻을 가진 지리적 명칭이다. 이 말은 본디 중국의 지명에서 빌린 말이다. 湖南省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

호인 洞庭湖의 남쪽에 위치하며, 동팅호를 기준으로 湖北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 호수의 남쪽이라는 축자적인 뜻이 적용되는 근거를 찾으면 그것은 錦江이라고 한다.⁴⁾ 碧骨堤의 남쪽을 호남지방으로 부른다는 설도 있지만, 금강 하류는 오래전부터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를 이루어 왔다.

‘南道’는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명칭인데, 지춘상 교수는 ‘남도’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 바 있다.

3) <전남의 역사>, 전라남도청 홈페이지(<https://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604020000>)

4) 나경수, 「3향 문화권(三鄕文化圈) 설정을 위한 호남지역 문화표상의 탐색」, 『호남문화연구』 49, 호남학연구원, 2011, 373쪽.

“남도의 권역적 개념을 민속음악뿐만 아니라 민속문화적 측면까지를 포괄하여 다른 지역과 두드러지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문화권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첫째로 민속음악적 측면에서 이보형의 시나위권을 참고하면서 김혜정의 육자백이토리가 민요에 직간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지역, 즉 북으로는 충청남도의 논산평야 이남, 동으로는 경상남도의 통영지역까지로 하고, 둘째로는 민속적인 측면에서 모정이 잔존하고 있는 지역, 셋째로는 국어학적으로 방언과 말씨의 억양이 비슷한 지역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정 짓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대개 계룡산 이남 섬진강 이서까지가 그 권역이 되므로 이를 남도권·남도의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⁵⁾

지춘상 교수는 ‘남도’라는 단어를 규정하면서 민속 음악적 측면에서 육자백이토리의⁶⁾ 분포, 민속 건축적 측면에서 茅亭의 분포,⁷⁾ 민속 어휘적 측면에서 전라도 방언의 사용 등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계룡산 이남에서 섬진강 이서까지를 ‘남도권’ 또는 ‘남도’라고 규정하였다. 지춘상 교수가 제시한 남도의 개념은 호남이라는 개념보다는 더 넓은 범위이지만, 대체로는 호남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후의 논의 전개 내용으로 볼 때도 남도 문화는 호남지역의 문화를 지칭하며 호남 문화에 대한 별칭이자 애칭으로 사용되고 있다.⁸⁾

지춘상 교수가 지역 민속학회를 창립하면서 행정적, 지리적 명칭이 아

5) 지춘상, 「남도의 개념」, 『남도민속학 개설』, 태학사, 1998, 12쪽.

6) 한국의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민요 토리이다. 한강 이남으로부터 경남의 서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무가와 남도 잡가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판소리와 산조에서는 계면조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구성음은 ‘미, 라, 시, 도’로, ‘미’에는 떠는 목(요성), ‘라’에는 평으로 내는 목(평성), ‘도-시’에는 꺾는 목(퇴성)이 나타난다. 김혜정, 「육자백이 토리의 장르별 변조·변청 양상 연구」, 『남도민속연구』 9, 남도민속학회, 2003. 논문 참조.

7) 모정은 농민들의 휴식, 회의, 감시 등의 목적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건립, 이용, 관리하는 개방형 정자류의 건물을 말한다. 모정은 전라남북도의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는 간단한 구조물로 호남지역의 문화권을 세분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보조자료이다. 전봉희, 「茅亭의 분포적 특성과 역사적 전개 -전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재』 27, 국립문화재연구원, 1994, 내용 참조.

8) 이경엽, 「남도민속학회사(南道民俗學史)」, 『남도민속연구』 16, 남도민속학회, 2008, 32~33쪽.

닌 문화적 명칭을 사용했는지는 강연 자료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춘상 교수는 시골 아낙네가 부르던 “홍글노래와 신세타령을 들으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한”을 규명하는 작업이 하나의 學問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비록 지역적 범위가 비슷하더라도 지리적 의미가 강한 ‘호남’이라는 단어보다는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남도’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남도민속연구에 지대한 역할을 한 지춘상 교수의 업적에 관해서는 논저와 민속 자료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살핀 서해숙⁹⁾의 작업이 있다. 남도민속학회의 연구 경향에 관해서는 이경엽¹⁰⁾과 서해숙¹¹⁾이 각각 살핀 바 있다. 이경엽은 『남도민속연구』 2~19집까지의 논문 자료를 주제별로 나누어 그 흐름을 살폈고, 서해숙은 2009년까지 발표된 논문과 월례발표회 자료를 주제별로 나누어 그 흐름을 살폈다.

이 글에서는 선행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춘상 교수의 이야기¹²⁾와 저술 내용을 통해 그가 남도 민속학 정립에 이바지한 바를 학술적 개념 정립과 제자 양성 부분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남도민속학회를 이끌고 있는 이들을 통해 남도민속연구의 현재 모습도 함께 언급해 보고자 한다.

II. 남도민속학의 씨 뿌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민속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해야 쓰겠다. 또 우리 민속의 수월성이라든가 남도 민속의 우수성의 실체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여기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쓰겠다. 그렇게 생각에

9) 서해숙, 「동은 지춘상의 남도민속 연구 성과와 과제」, 『남도민속연구』 16, 남도민속학회, 2008.

10) 이경엽, 앞의 논문.

11) 서해숙, 「남도민속학회의 지향과 과제」, 『한국민속학』 51, 한국민속학회, 2010.

12) 한국민속학회 제64차 학술대회의 강연 내용을 기본 자료로 삼는다.

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69년에 <고씨읍놀이>를 발굴해 가지고 대구에 가서 대통령상을 탄 것입니다.”

-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중에서 -

지춘상 교수는 남도의 민속을 연구하기 위해 두 가지에 힘을 쓴다. 하나는 민속자료 발굴을 통한 민속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도민속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1. 민속자료 발굴

지춘상 교수가 민속자료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현장 조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녹음기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리하라고 해서 그 놈을 베끼고 앉았다는 것조차도 우스울 뿐만 아니라 또 대단히 어려운 것은 6·25사변 직후이기 때문에 어떤 조사를 나가면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6·25사변 때 말을 잘못했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을 묻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고, 또 그다음에 민요를 하라고 하면 ‘먹고 살기 편해야 소리도 부르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라고 그러느냐?’, 또 상여소리 한번 하라고 하면은 ‘사람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또 죽으라고 하는 소리냐?’. 도저히 뭐 접근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조사 가면 경찰서에서 반드시 순경들이 와서 옆에 있다거나, 또 조사를 가면은 지서에 가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던가, 이런 그 어려운 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조사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지난(至難)한 그런 시절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중에서 -

녹음기도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 지춘상 교수는 자비로 구매한 녹음기를 메고 주민들에게 이야기와 소리를 들으러 다녔다. 하지만, 한국 전쟁 이후인지라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 쉽사리 이야기보따리를 풀지 않았다. 또한, 현장 조사에 앞서 지역 경찰서에 들러 조사 목적 등을 설명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사진 2〉 지춘상 교수의 현장 조사 모습(『한국민속학의 거목 지춘상』)

이러한 민속 조사의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 스스로 협조를 구할 방법을 찾고자 고민하게 된다. 즉, 우리 민속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가 민속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할 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의 해결책으로 찾은 것이 바로 ‘남도 민속 발굴’ 작업이었다.

“지금에 대해서 제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만 민속에 대해서 정말로 언론계에서 라든가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제가 신문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일보>입니다. 제가 그때 고싸움으로 대통령상 탔을 때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 전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써주고 특히, 중앙일보에는 임석재 선생이 해설까지도 해주고 말이죠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특히 우리 전남 사람들이 민속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때 감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중에서 -

지춘상 교수는 일반 사람들이 우리 민속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민속에 대한 제보도 이루어질 것이고, 조사나 연구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춘상 교수가 주목한 것은 민속에 관해 호의적 관심을 보인 언론보도였다.

당시는 사회적으로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다.



〈사진 3〉 교씨춤 대통령상 수상 관련 기사(1969. 10. 7. 《조선일보》 6면)

민속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예향이라는 긍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것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중에서 -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할 때마다 신문은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었다. 지춘상 교수는 이 점을 이용하면 남도 지역에서 민속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겼다. 때문에 남도 민속 자료 발굴과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은 지속된다.

13)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1958년 정부 수립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시작된 행사이다. 1961년부터 공보부(지금의 국정홍보처) 주최로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967년부터 전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순회하였다. 1999년부터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면서 이름도 〈한국민속예술축제〉로 바뀌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 바람(김희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형성초기 역사의 재구성」, 『민족문화논총』 6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표 1〉 주요 발굴 작품 및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수상 내역

대회	발굴 민속	수상	기타
제1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69년)	고싸움놀이	대통령상	국가무형문화재
제1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70년)	거문도 뱃노래	개인상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70년)	장흥 보름줄다리기	국무총리상	
제1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71년)	진도 들노래	국무총리상	남도들노래 (국가무형문화재)
제1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74년)	나주 들노래	국무총리상	
제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75년)	해남 강강술래	국무총리상	국가무형문화재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76년)	해남 강강술래	대통령상	국가무형문화재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78년)	진도 만가	문화공보부 장관상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80년)	거문도 술비소리	장려상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81년)	함평 농요	개인상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83년)	장산도 들노래	국무총리상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86년)	담양 들노래	문화공보부 장관상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90년)	고흥한적 들노래	문화공보부 장관상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91년)	광산 농악	문화공보부 장관상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94년)	광산 들노래	공로상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95년)	진도 닻배노래	문화공보부 장관상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95년)	호남 우도농악 도잡이굿	공로상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98년)	광산 폴두레	공로상	



〈사진 4〉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장식한 고싸움(좌)과 폐막식을 장식한 강강술래(우)(서울올림픽자료실)

지춘상 교수가 발굴하고 되살려낸 대표적인 남도 민속 자료는 국가무형문화재 “고싸움놀이”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강술래”이다.

1940년대에 단절된 고싸움놀이는 관련 기록이 없이 구술 자료만 남아있었다. 지춘상 교수는 칠석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마침내 1969년, 단절된 고싸움놀이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제1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는다.

해남 강강술래 역시 지춘상 교수가 노랫말을 복원해내고 가무를 재구성해서 197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 대통령상을 받는다. 88서울올림픽 개막은 고싸움이 열고, 폐막은 강강술래가 마무리하면서 그 가치를 증명하였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국동 용전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들노래 역시 1960년대를 끝으로 맥이 끊겨있었다. 지춘상 교수는 용전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고증을 토대로 들노래를 재현한다. 1999년 제1회 광주광역시 민속예술축제에서 용전 들노래는 최우수상을 받게 되고, 2014년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다. 진도만가, 거문도 뱃노래,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 등

수많은 남도의 민속을 발굴하고, 복원하였다. 지춘상 교수가 발굴한 민속은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을 통해 국가 혹은 시·도문화재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게 된다. 이는 지춘상 교수가 우리 민속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민속에 대한 의식 확대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학술적 개념 정립

민속자료를 발굴하여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 홍보 효과를 통해 민속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으로 지춘상 교수는 남도민속문화에 대한 개념 정립에도 공을 들인다.

지춘상 교수는 1958년 전남대학교에서 “민요론” 강의를 시작한다. 이것은 남도 지역에 민속학 관련 강의가 처음 개설된 것으로 남도 민속 연구의 출발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대학 강의 개설과 함께 지춘상 교수는 남도의 개념과 호남인의 인성에 대해 학문적 논의를 시작한다. 남도의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적 특성을 제시한 「남도문화 특질론」¹⁴⁾이 그것이다.

“어느 것이 호남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설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가 힘들나 다만 호남이라는 명칭과 병행되고 있는 남도(南道)라는 말과 아울러 따진다면 더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남도라는 명칭은 그 어떤 행정 구획상의 지역명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속예술(民俗藝術) 특히 민속 음악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는 남도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

- 지춘상, 「남도문화 특질론」 중에서 -

‘호남’이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남도’라는 명칭에 대해 지춘

14) 지춘상, 「남도문화 특질론」, 『대학국어』, 전남대학교 어문연구회, 1985. ;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한국민속학의 거목 지춘상』,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2013, 191~205쪽 재수록. 이하 관련 내용은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에서 발간한 글을 인용함.

상 교수는 민속예술 특히 민속 음악적 측면에서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판소리와 시나위권 등을 살펴 남도라는 명칭이 문화적 특성이 있는 단어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후에 「남도의 개념」¹⁵⁾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된다.

아울러 호남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방편으로 人性에 대해 고찰한다. 즉, 인간에 의해 역사적 조건과 공간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는 인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춘상 교수는 남도지역의 문화적 특성으로는 藝術性, 風流性과 멋, 서민성(민중성)을 들었다.

먼저, 예술성은 판소리, 강강술래, 줄다리기, 고싸움, 농악, 민요 등 민속예술의 활발성과 陶藝, 書畫 등 미술의 발달, 시조와 가사, 현대시 등의 시가문학 전반에서 찾아진다. 그러면서 이를 ‘권의 예술’¹⁶⁾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같은 예술성의 바탕 위에서 이룩된 호남 예술은 그 밑바탕에 또 다른 특성을 표출시키고 있다. 이를 필자는 호남 지방서 흔히 쓰는 ‘권’이라는 말을 빌려 ‘권의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지춘상, 「남도문화 특질론」 중에서 -

다음으로, 풍류성은 생활상에 표출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배산임수의 지형에 터를 잡아 자연을 집 속으로 끌어들인 주택 양식이나, 경관이 좋은 지형에다 누각이나 정자, 詩亭을 짓고서 여름 한 철을 보내고, 일손이 바쁜 농경기에는 낮잠을 한숨 자고서 일자리로 향하는 여유나 풍류를 즐겼던 모정 문화뿐만 아니라, 놀이나 휴식을 취할 때 부르는 민요 등은 풍류성의 바탕 위에서 이룩된 문화 현상인 셈이다.

15) 지춘상, 「남도의 개념」, 앞의 책 참조.

16) ‘권’이라는 말은 ‘자꾸 눈이 가며 관심이 있는’ 혹은 ‘볼수록 정이 들고 매력적’, ‘예의 바른’ 등의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다.

끝으로, 서민성(민중성)은 호남 문화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데, 판소리나 도예의 주체가 천대받은 민중들이었고, ‘권의 예술’을 좋아하게 된 연유도 집권층의 화려함보다도 피집권층이라 억눌리고 살아왔기에 표면에 나타나기를 꺼리고 살짝 감추어진 곳에서 美를 추구하고자 하는 공감대에서 형성된 성향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춘상 교수는 호남인의 인성을 ‘징한 기질’¹⁷⁾, ‘숫한 심성’¹⁸⁾, ‘보듬는 인성’으로 표현하였다.

“‘숫한 심성’, ‘보듬는 인성’은 항상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것이기에 표면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본다면 ‘징한 기질’은 항상 외면에 표출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잠재해 있다가 그 어떤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폭발하고 끝장을 보고 만다.”

- 지춘상, 「남도문화 특질론」 중에서 -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적인 면을 투시하지 않고 외적으로 표출된 것만 본다면 순후하고 온후하고 포용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족대가 없고 우유부단하며, 어떤 이가 말한 風前細柳의인 성격으로 보일 수도 있게 된다. 여기에 호남인의 성격적인 허점이 내재해 있고, 관점에 따라서는 악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여 남도 사람들의 인성을 잘못 이해할 수 있음도 걱정하였다.

정리하자면 지춘상 교수는 남도 문화의 특성인 예술성, 풍류성, 서민성을 남도인들의 ‘징한 기질, 숫한 심성, 보듬는 포용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남도의 자연, 남도인들이 품고 있는 특성이고, ‘남도’라는 말 자체가 품어내는 미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춘상 교수의 노력으로 남도 민속 연구의 씨앗은 발아하게 된다.

17) ‘징하다’는 ‘같은 일 따위를 계속 반복하여 질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때로는 ‘끈질기다’, ‘모질다’, ‘지긋지긋하다’ 등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18) ‘숫하다’는 ‘순박하고 어수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Ⅲ. 남도민속학의 뿌리내림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혼자 돌아다니는데, 고난(苦難)해서 어떻게 보면은 후계자라고 하면 우습습니다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내가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러던 차에 81년도에 최초로 저를 찾아온 것이 아까 나경수 선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온 것이 82년에 나승만 선생, 그리고는 인제 표인주 선생, 이경엽 선생 모두 이런 분들.”

-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중에서 -

1. 연구 동료 육성

남도민속연구의 씨앗을 발아하게 만든(혹은 씨앗, 그 자체인) 지춘상 교수도 혼자서 진행하는 연구는 힘이 들게 마련이었다. 아무리 민속에 대한 인식을 전환 시키고자 노력하고, 남도 민속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학술적 성과를 도출했지만, 민속연구는 여전히 고독한 작업이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조사를 가서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로 뭐 혼식을 장려할 때고 도리지방에 가면 밥을 못 얻어먹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조사를 가면은 돈만 쓰고 저녁 내 잡도 못 자고, 이렇게 하는 놈의 학문을 뭐 때문에 해야 하나? 돈도 안 나온 학문, 그리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 저 사람 묘한 사람이라고 쓸데없는 옛날 것만 묻고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 백안시하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절대 한번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는 안 따라 갑니다.”

-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중에서 -

학생들과 함께 한 현장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이다. 교통편도 어렵고, 숙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의 조사 환경 속에서 학생들과 함께 조사하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차에 지춘상 교수에게 힘이 되어준 이들이 생겨난다. 바로 지춘상 교수와 남도 민속 연구를 함께하게 될 제자들이다.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연구 동료라고 저는 얘기합니다만, 좋은 분들이 여러

분 나경수, 나승만, 표인주, 이경엽, 윤여송, 또 이준곤도 있고, 요새는 서해숙, 최명립, 한미옥, 지금 박사학위를 우리 전남대학에서 민속학으로 받은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이제 이만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중에서 -

지춘상 교수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한 제자로는 윤여송, 나승만, 나경수, 표인주, 이경엽 등을 들 수 있다.¹⁹⁾

윤여송(1950~2012)은 1982년 「전남 어촌속담의 의미기능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성인경상전문대학(호남대학교 전신)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한다. 「전남지방 산속담」, 「강강술래의 가창방식과 의미」 등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다.

나승만(1953~)은 1990년 「전남지역의 들노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1년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2019년 교수로 퇴임한다. 한국민요학회장, 목포대학교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아시아 섬의 민요 공동체에 담긴 인간다운 삶의 길 찾기」 등 110여 편의 논문과 『민요공동체 연구』 등 50여 권의 저서가 있다.

나경수(1955~)는 1988년 「한국건국신화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임강사를 시작하여 2021년 교수로 퇴직한다. 국립대학박물관장협의회장, 한국민속학회장,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제석무가연구」 등 110여 편의 논문과 『한국의 신화연구』 등 100여 권의 저서가 있다.

표인주(1960~)는 1994년 「전남의 당신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1년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남대학교박물관장,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 등을 역임하였고, 「삶과 공간, 그 의미 확장의 체험주의적 해명」 등 120여 편의 논문과 『다중심사회의 가치와 지역어문학』 등 50여 권의 저서가 있다.

19) 이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등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한국연구자정보(<https://www.kri.go.kr/>)

이경엽(1963~)은 2005년 「전남 무가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5년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장, 인문대학장 등을 역임하였고, 「상례굿의 총체성과 호모 밤따래쿠스」 등 110여 편의 논문과 『신명을 이어주는 기억과 기록, 진도강강술래(하)』 등 100여 권의 저서가 있다.

이들 외에도 지춘상 교수에게 박사학위를 받은 지역의 민속학자로는 허경희(1935~) 목포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준곤(1948~) 목포해양대학교 명예교수를 들 수 있다.

“제가 민속학을 관심을 갖고 전남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했고, 동료 교수들, 동료연구자들을 이제 많이 길러내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하게 된 요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중에서 -

이렇게 배출한 제자들은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대학에 재직하면서 남도 민속연구를 수행하는 든든한 지원자이자, 동료 연구자로 자리매김한다. 비로소 남도 민속 연구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2. 연구 학회 결성

제자들의 자리매김과 더불어 남도민속학 연구의 지평을 넓힌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조직도 구성하게 된다. 바로 “南道民俗學會”가 그것이다. 남도민속학회는 남도 민속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와 민족문화의 올바른 계승에 이바지하고자 1991년에 설립되었다. 전국 주요 대학 교수와 연구원, 민속학 석박사 및 석박사수료생 등 3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남도민속연구』를 6월과 12월에 발간하고 있다.²⁰⁾

20) 남도민속학회 홈페이지(<http://www.namdofolk.net/>)

남도민속학회의 전신은 1991년에 결성된 ‘全南民俗學研究會’이다. 1995년부터 ‘남도민속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학회 명칭에 드러나듯이 초창기에는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민속 문화 현장 조사 및 민속학 연구에 집중하였다. 이후 지춘상 교수의 뜻과 이상을 계승하고자 ‘남도’라는 문화적 영역으로 그 연구 범위를 확대, 다양한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학문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²¹⁾

그런데, 전남민속연구회가 조직되기 이전부터 지춘상 교수의 제자들을 중심 조직적인 민속 조사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이 동료들과 더불어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겠다 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은 이제 여름방학에는 한 열흘씩 우리가 전부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동네라든가 또는 도서지방을 정해 가지고 뭐 87년에 ‘영광 안마도’, 88년 ‘가거도’, 89년 ‘금산’, 90년 ‘거문도’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서 열흘 동안 실질적으로 거기서 조사를 하고 연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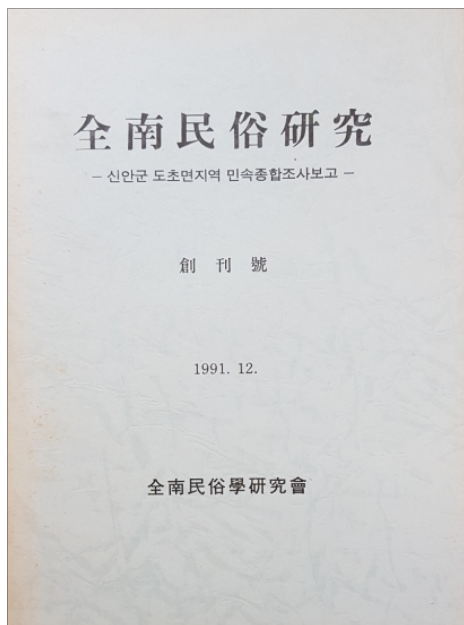
-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중에서 -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남도 민속에 대한 조직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학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학회가 설립된 1990년대 초는 남도민속학사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시기다. 즉 연구자들의 역량 결집과 지속적인 연구 활동의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분기점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민속학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민속 조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다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민속 조사를 통한 학문적 훈련을 거치면서 연구자들이 육성되고 그것이 학회 결성의 힘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이른 시기부터 학문적 전통을 일궈온 전남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학회 설립의 동력이 되었다.²²⁾

21) 서해숙, 앞의 논문(2010), 65쪽.

22) 이경엽, 앞의 논문, 40쪽.



<사진 6> 『전남민속연구』 창간호

이후 남도민속학회는 정월과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매년 두 차례씩 현지 조사해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월례 발표회를 통해 학문적인 성과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2022년부터는 월례 발표회 대신 봄, 가을에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지인 『남도민속연구』는 2022년 12월 말 45집이 발간되었다. 학술지 발간 초기 연구주제로 볼 때 민속 문학, 민속신앙, 민속예술 등에 편중돼 있고 물질 민속이나 의식주, 생활 민속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현지 조사와 연구를 긴밀하게 연결한 연구가 많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2000년대 이후에는 남도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연구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도입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전공의 연구 성과들이 게재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로 구비문학, 놀이, 세시풍속 등의 민속학에 국한되어 있던 연구의 폭이 확장된다.

음악 분야의 김혜정(경인교육대), 김삼진(전, 광주시립창극단), 김기형(전, 고려대), 최진(한국교원대), 홍태한(전북대), 이용식(전남대), 박희순(광주문화재단), 전통 복식 분야의 김은정(전남대), 안명숙(광주대), 전통 무용 분야의 강인숙(경상대), 박선옥(광주여대), 전통 건축 분야의 천득염(전남대) 등이 연구 성과를 『남도민속연구』에 기고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소홀히 다뤘던 도서·해양문화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의 활동 성격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문화연구원에서 활동하는 민속 관련 연구자들이 대부분 남도민속학회 회원이라는 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조정만(전, 목포대), 고광민(전, 제주대), 김준(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윤선(前, 목포대), 박종오(전남대), 송기태(목포대) 등의 연구 성과를 예로 들 수 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일찍부터 지춘상 교수와 교류하고 있던 竹田坦(1924~2021, 이바라키대학) 교수를 비롯해 곤노 게이코(광주대학교), 栗本 吉基(광주대학교), 전경옥(고려대), 윤동환(전북대) 등이 논문 투고를 지속하고 있다.

IV. 남도민속학의 가지 뻗음

“나는 남도민속학에 대한 뿌리를 씨를 내가 뿌렸다. 그러니 나경수 선생, 나승만 선생, 표인주 선생 자네들은 이 싹을 잘 키워 가지고 자네 제자들이 여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따는 학문은 3대 정도 가야만 비로소 꽃 피울 수 있네.’ 내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중에서 -

지춘상 교수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고 난 후에 시작된 남도민속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민속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시켰다. 대회 입상 등의 성과를 획득하고, 이를 홍보케 하여 민속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민속학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남도의 개념 규정 및 남도의 인성 등을 규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남도민속학의 씨를 뿌리고자 노력한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들기도 하였다.

“강강술래는 손만 잡고 원무(圓舞)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디만, 저녁내 강강술래를 하는데 손만 잡고 원무만 해서야 어떻게 부인들이 저녁 내 밤새우면서 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수적인 놀이들을 이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하나로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75년도에 이제 <강강술래 놀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전국 대회에 나가 가지고 대통령상을 탔는데, 그 때 또 신문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대대적으로 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남생아 놀아라’라든가 ‘청어엮자’라든가 ‘고사리꺾자’라든가 또는 ‘쥐새끼놀이’라든가 요새 열두 서 너가지 놀이가 제가 처음으로 찾아 내가지고 강강술래 속에다가 엮어 넣어 가지고 안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새는 교과서처럼 되었습니다만.”

-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중에서 -

손을 잡고 둥글게 도는 圓舞만 계속할 수가 없기에, 함께 조사된 다양한 놀이를 결합하여 대회에 출전한 것이다. 그런데, 후에는 이것이 민속 놀이의 원래 모습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민속의 발굴과 자긍심을 위해 행한 일이 민속의 모습을 변화시켜 버리는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춘상 교수가 민속 자원 발굴과 남도민속학의 개념 정립에 노력하였다면, 지춘상 교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은 지춘상 교수의 노력을 잇는 한편, 자신만의 연구 분야를 선정, 독보적인 성과 성과를 도출하였다. 나경수는 신화 부분에서, 나승만은 민요 분야에서, 표인주는 문화 정책 분야에서, 이경엽은 무속 분야에서 영향력을 갖춘 연구자로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이 지도한 제자들도 그 연구 역량을 갖추어 남도 민속연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나경수의 제자인 서해숙(남도학연구소장, 신양), 한서희(목포대, 설화), 이옥희(전남대, 민요), 박종오(전남대, 어로 문화), 정혜정(광주여대, 판소리) 등은 대학에서 강의와 함께 연구를 병행하면서 남도민속문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최명림(국립민속박물관), 김지현(광주시청), 이명진(문화재청), 정명철(농촌진흥청), 백미영(소록도박물관), 임세경(국립민속박물관) 등이 학예 연구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나승만의 제자인 이운선(전, 목포대)과 송기태(목포대)는 어로 민속 분

야에서 독보적인 연구를 수행 중인데, 송기태는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전임교수로 교육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향진(광양버꾸놀이)은 현장 공연 활동을 통해 연구 지평을 넓혀가고 있고, 홍미희(목포문학관)는 학예 연구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이경엽의 제자인 하미순(진도군립민속예술단)은 현장 공연을 통해 학술적 성과와 공연적 성과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표인주의 제자인 한정훈(전남대)은 구비문학, 특히 경험담 부분에서 활발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전임교수로 교육 활동에도 노력 중이다. 이 외에 유목화(전남대), 부유진(광주역사박물관), 송기현(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도 민속 문화의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민속학 연구에 있어 현재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중앙대학교 민속학과는 2013년 폐과되었고, 안동대학교 민속학과는 2023년부터 문화유산학과로 학과 이름이 변경되었다. 취업과 연계되어 과를 평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인문학은 항상 위기 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속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굳게 자리 굳힘 해야한다. 다행스럽게도 안동대학에 민속학과가 처음 생겨 가지고 정말로 민속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이제는 중앙대학교가 이제 생겼습니다만, 아직도 민속학은 국문학의 아류 학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국문학에 붙어서 서식하는 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을 쓰더라도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려면, 순순 민속학을 써서는 취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문학에 걸쳐서 써야 쓰겠다. 그래 가지고 한 항목에다가 저부터라도 지도할 때에 국문학에 대한 것을 넣게 그렇게 합니다만, 정말로 이제는 민속도 전통문화의 연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의미에서라도 이제 민속학이 학문으로서 정립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연구하는 우리 교수들이 조금 더 이제 분발을 하면서 단합해야 쓰겠다.”

-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중에서 -

지춘상 교수도 점점 좁아 드는 민속연구의 입지를 예견했는지도 모르겠다.



〈사진 7〉 지춘상 교수 10주기 추념 씻김굿 (2019.09.06.,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지춘상 교수에 의해 받아되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 뿌리내린 남도 민속학은 이제 제자의 제자들에 의해 차츰 가지 뺨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가지를 뺨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民草들처럼 그들도 쉽게 학문을 놓아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기에 오늘도 민속 현장에는 지춘상 교수의 뜻을 품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23년 02월 0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2월 27일부터 03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3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한국민속학의 거목 지춘상』,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2013.
- 김혜정, 「육자백이 토리의 장르별 변조·변형 양상 연구」, 『남도민속연구』 9, 남도민속학회, 2003.
- 김희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형성초기 역사의 재구성」, 『민족문화논총』 6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 나경수, 「3향 문화권(三鄕文化圈) 설정을 위한 호남지역 문화표상의 탐색」, 『호남문화연구』 49, 호남학연구원, 2011.
- 서해숙, 「동은 지춘상의 남도민속 연구 성과와 과제」, 『남도민속연구』 16, 남도민속학회, 2008.
- 서해숙, 「남도민속학의 지향과 과제」, 『한국민속학』 51, 한국민속학회, 2010.
- 이경엽, 「남도민속학사(南道民俗學史)」, 『남도민속연구』 16, 남도민속학회, 2008.
- 이옥희, 「남도 문화예술의 미적 특성과 문화 가치」, 『용봉인문논총』 44,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 전봉희, 「茅亭의 분포적 특성과 역사적 전개 -전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재』 27, 국립문화재연구원, 1994.
- 지춘상, 「남도문화 특질론」, 『대학국어』, 전남대학교 어문연구회, 1985.
- 지춘상, 「남도의 개념」, 『남도민속학 개설』, 태학사, 1998.
- 지춘상, 「나와 남도 민속학」,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남도민속학회(<http://www.namdofolk.net/>)

전남도청(<https://www.jeonnam.go.kr/>)

서울올림픽자료실(<https://library.kspo.or.kr/>)

한국연구자정보(<https://www.kr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Foundation of 'Namdo Folklore'

- Focusing on the role of Professor 'Ji, Chun-sang' -

Park, Jong-o

Words referring to the 'Jeolla-do' area include 'Honam' and 'Namdo'. The word 'Honam' has a geographical meaning. The person who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olklore of Namdo was Dongeun 'Ji, Chun-sang(October 09, 1932 to May 29, 2009)'. Born in Hampyeong, Jeollanam-do, Ji Chun-sang made great achievements in Namdo folklore research by discovering Namdo folk materials and winning academic awards while serving as a professor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i, Chun-sang tried to make the general public feel proud of our folklore through the discovery of folk materials. Accordingly, various folk materials of Namdo, such as "Gossaum Nori(Loop Fight)" and "Ganggangsullae", were discovered and promoted. In addition, it was emphasized that the name 'Namdo' is a word with cultural characteristics. In this contex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amdo region were 'yesulseong(artisty)', 'punglyuseong(elegant life)', 'meot(flavor)', and 'seominseong(folkishness)'.

He also trained colleagues to share Namdo folklore research. The students produced by Professor Ji Chun-sang work at major universities in Gwangju-Jeonnam area. He is a reliable supporter of Namdo folklore research. He has also established himself as a fellow

researcher. In addition, A research society is also organized to expand the horizon of Namdo folklore research. Based on this organization, academic systematization was attempted by expanding the scope of research and diversifying research fields.

Ji Chun-sang trained researchers to share Namdo folklore research. Ji Chun-sang's students work at major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nnam. They are reliable supporters of Namdo folklore research. They have also established themselves as fellow researchers of Ji Chun-sang. In addition, a research society is organized to expand the horizon of Namdo folklore research. Based on this organization, academic systematization was attempted by expanding the scope of research and diversifying research fields.

The disciples influenced by Ji Chun-sang are drawing unique research results in their own fields. In addition, many researchers are contributing to Namdo folk research with their research capabilities. today, there are people who have the will of Professor Ji Chun-sang at the folk site.

keywords :

Ji, Chun-sang, Honam, Namdo, Folklore, Fieldwork, Fellow researcher, Namdominsoghaghoe(The Society of Namdo Folklore).

